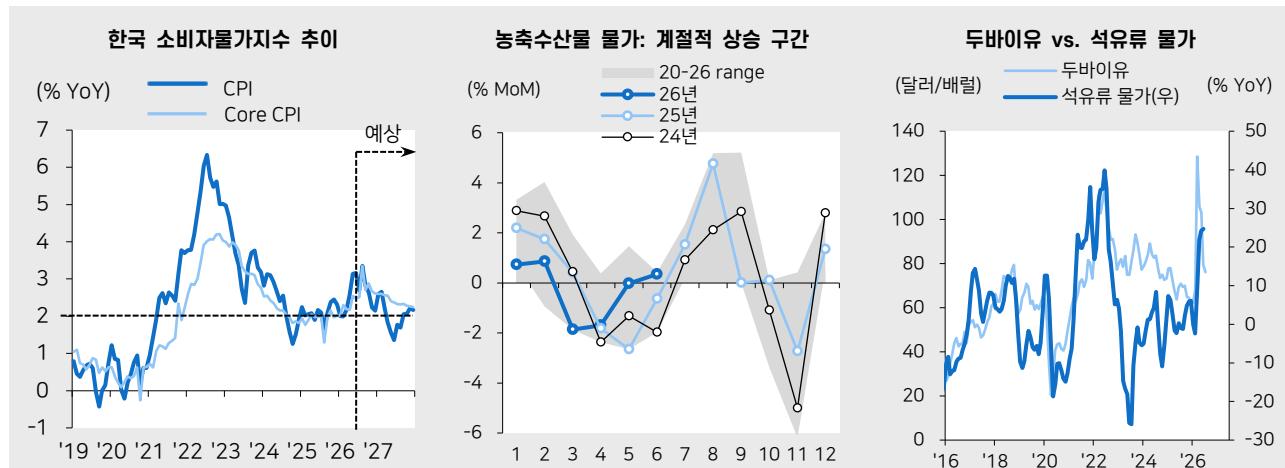


오늘의 차트

박민서 연구원

한국 7월 CPI, 수요측 물가 압력 확인될까



자료: 국가데이터처,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은 8월 금통위를 앞두고 연속 인상(back-to-back)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근거는 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를 기반으로 성장세 강화, ②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으로 정리된다. 동시에 이미 인상 기조 지속을 시사했으나, 그 자체로 연속 인상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2Q GDP에서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가 확인된 만큼, 8월 금통위 핵심 변수는 결국 7월 물가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6월 기준 전년대비 3.2% 및 전월대비 0.1% 상승하며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공급측 요인이 컸다. ① 5월 유가가(두바이유 기준) 100달러/배럴을 상회하고 있었고, ② 여름철 폭염/장마 등으로 인해 계절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었다.

그러나 7월 물가는 3%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6월 14일 미국-이란 MOU 체결 이후 유가 레벨이 낮아졌고, 이는 약 1개월의 시차를 통해 7월 원유도입단가에 반영된다. 또한 석유가격상한/여름철 한시적 전기세 인하 등의 정부 정책 등도 하방 요인이다.

또한 현재 국면에서 수요측 물가 압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원 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흐름이 더 중요하다. 물론 최근 수요측 물가 압력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 서비스 물가가 다소 경직적인 점은 우려스럽다. 다만 개인 서비스 물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핵심은 이러한 흐름이 근원 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며 목표치 상회가 장기화되는지 여부다. 따라서 아직은 연속 인상을 단정하기보다, 7월 물가를 통해 수요측 압력의 지속성과 확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